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농기센터, 어린이 도시원에 체험활동 호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센터는 어린이들이 반려 식물 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바른 인성 기르기, 농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원생 중 만 3~5세를 대상으로 23개소 어린이집 1,000명의 원생을 선정, 지난 12일부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물 및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체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진행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과정을 통해 배출한 도시농업관리사 10여 명이 강사로 투입,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을 시

작하게 돼 앞으로 치유농업뿐 아니라, 뉴딜정책을 통한 도시 녹색 공간조성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실제 어린이들이 농업 체험활동에 참여할 경우 공격성이 13% 감소하고, 정서 함양은 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생활 습관성 질환자 14명(평균 나이 49.8세)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뇌파 분석에서 참여자들의 안정·이완도는 42% 올랐고, 긴장·스트레스 지표는 21.7% 낮아졌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주고,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허정환 기자 cldn27@daum.net

군산시, 어린이 도시원에 체험활동

심리적 치유·정서 함양 효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센터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확산과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어린이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에 있어 반려 식물 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바른 인성 기르기, 농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원생 중 만3~5세를 대상으로 23개소 어린이집 1,000명의 원생을 선정, 지난 12일부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물 및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체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진행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과정을 통해 배출한 도시농업관리사 10여 명이 강사로 투입,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되어 앞으로 치유농업뿐 아니라, 뉴딜정책을 통한 도시 녹색 공간조성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높은 치유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실제 어린이들이 농업 체험활동에 참여할 경우 공격성이 13% 감소하고, 정서 함양은 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생활 습관성 질환자 14명(평균 나이 49.8세)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뇌파 분석에서 참여자들의 안정·이완도는 42% 올랐고, 긴장·스트레스 지 지표는 21.7% 낮아졌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허정환 기자

전라매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08면 지역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 '호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만3~5세 대상 어린이집 원생 1000명 선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센터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확산과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어린이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에 있어 반려 식물 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바른 인성 기르기, 농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원생 중 만3~5세를 대상으로 23개소 어린이집 1,000명의 원생을 선정, 지난 12일부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해당 어린이

집을 방문해 식물 및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체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진행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과정을 통해 배출한 도시농업관리사 10여 명이 강사로 투입,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앞으로 치유농업뿐 아니라, 뉴딜정책을 통한 도시 녹색 공간조성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현 기자

전북중앙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10면 지역

군산농기센터 어린이도시 원예체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업)가 어린이들의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 도시 원예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농기센터는 어린이집 원생 가운데 만3~5세를 대상으로 23개소 어린이집 1,000명의 원생을 선정, 지난 12일부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물 및 재배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체험을 진행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